

1987年度 大學 特性學科 評價

- ◇ 이 研究論文은 韓國大學敎育協議會의 주관하에 1987 ◇
- ◇ 학년도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로 崔正燾(延世大), 金 ◇
- ◇ 鎮滿(翰林大), 朴東緒(서울大), 鄭在哲(中央大), 韓 ◇
- ◇ 宗哲(延世大), 朴乃會(西江大), 康榮燾(延世大), 李 ◇
- ◇ 茂根(서울大), 曁圭大(全北大), 金鎮英(慶熙大), 尹 ◇
- ◇ 亨遠(忠南大), 趙星河(高麗大 敎수)에 의해 수행된 ◇
- ◇ 것이다. 紙面 關係상 그 내용을 전부 소개하지 못하 ◇
- ◇ 고 結論 및 提言 部分만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1. 結 論

1) 專攻系列別 特性學科의 分布

① 현재(1987년도) 全國 86개 4년제 大學에 總 10개 專攻系列에 걸쳐 86개의 特性學科가 있으며, 전체 54개의 學科로 構成되어 있다. 이 중 工學系列과 理學系列의 特性學科가 전체 特性學科의 약 36%로 가장 많으며 水·海洋系列과 藝術系列이 가장 적어 專攻系列別로 特性學科가 偏重되어 있으나 이러한 傾向은 學問的 추세와 大學生의 在籍數를 고려하면 보편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

② 각 專攻系列別의 學科에 있어서 一部 專攻系列의 경우는 特定學科로 特性學科가 편중되어 있다. 語文系列의 경우는 9개 特性學科中 英語 英文이나 英文學科가 7개(78%)나 되며, 農林系列은 7개의 特性學科中 4개 學科가 畜産學科로 그리고 藝術系列의 경우는 모두 美術專攻

이어서 特性學科가 特定學科로 매우 편중되어 있다.

2) 特性學科의 選定 理由

① 각 大學이 特性學科를 選定한 理由는 어느 하나의 이유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學科가 가지고 있는 特徵들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따라서 特性學科로 선정할 당시(1983년도)의 정확한 選定 理由에 대한 理解度가 全般的으로 不足하며, 特性學科에 대한 精確한 定義나 內容에 대한 見解가 모든 大學들이 一致하지 않았다.

② 전국 83개 大學에서 特性學科를 선정한 이유를 분석하여 보면, 地域的 特性 및 産學協同의 이유에서부터 時代的 要求에 副應하는 有望한 學科에 이르기까지 크게 9가지 內容(전체 83개 大學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9개 大學 이상에서 나타난 선정 이유)으로 분석되어, 特性學科의 선정 이유가 매우 多樣하다. 어떤 측

면에서 보면, 이는 각 大學이 特性學科에 대한 理解와 認識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③ 전체 83개 大學의 40%인 33개교 이상에서 나타난 特性學科의 선정 이유는 '高級人力의 공급이 必要한 學科'(40校), '地域的 特性 및 產學協同의 容易性'(37校), '學科의 傳統과 建學理念'(35校) 그리고 '學科의 學問的 性格과 發展可能性'(34校) 등 4 가지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우수한 教授陣과 教授確保의 容易性'(23校), '學生들의 우수성과 卒業生들의 선도적 역할'(20校), '學科의 研究施設과 環境의 우수성'(19校)의 順이다.

④ 特性學科의 선정 이유에 대한 差異는 大學의 設立 및 規模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私立大學(校)의 경우는 '學科의 傳統과 建學理念'이 가장 많았고(63개교 중 33개교, 52%), 國·公立大學(校)은 '地域的 特性 및 產學協同의 容易性'의 이유가 가장 많았다(20개 중 16개교, 80%).

⑤ 特性學科의 專攻系列이나 地域別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語文·人文 및 社會系列이나 理工系列의 特性學科에서는 '高級人力의 供給이 必要한 學科'를 그 선정 이유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 農林系列이나 醫·藥系列의 경우는 '地域的 特性 및 產學協同의 容易性'에 크게 比重을 두고 있다. 그리고 서울 소재의 大學이 特性學科를 선정한 이유로 '學科의 傳統과 建學理念'(12개교 중 12교), '學生들의 우수성과 卒業生들의 선도적 역할'(11校) 그리고 '高級人力의 供給이 必要한 學科'(10校)를 들고 있는 반면에 地方大學의 경우는 '地域的 特性 및 產學協同의 容易性'(59개교 중 36校), '高級人力의 供給이 必要한 學科'(30校) 그리고 '學科의 學問的 性格 및 發展可能性'(27校)을 들고 있어, 서울과 地方大學들이 特性學科를 선정하는 이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特性學科의 特性 및 強點

① 현재 特性學科가 同一大學內 他學科와 비교할 때 가지는 特性이나 強點으로서는 全體的인 傾向에서 보면 '學生의 우수성 및 卒業生의 선도적 역할'(83校中 50校, 63%)을 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特性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우수한 教授陣과 많은 教授數'(30校, 36%) 그리고 '시설 설비의 우수성'(29校, 35%) 등을 많은 大學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를 特性學科의 선정 이유와 비교하여 보면, 처음 特性學科를 선정할 당시 가장 많았던 3 가지 이유 항목의 內容과 현재 特性學科가 지니는 特性 및 強點으로 볼 수 있는 3 가지 內容과는 하나도 同一한 內容을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처음에 特性學科로 선정하였던 이유가 오늘에 와서는 特性學科의 強點이나 特性으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아, 特性學科 선정 이유에 대한 妥當性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② '學生들의 우수성과 卒業生들의 先導的 역할'이 特性學科가 同一大學內 他學科에 비하여 가지는 가장 큰 特性이나 強點이라는 것은 모든 專攻系列에 관계없이 나타났으나, 語文·人文 및 社會系列과 醫·藥系列의 特性學科에서는 '學科 傳統'을 強點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理·工系列이나 農·林系列의 特性學科에서는 '우수한 教授陣과 많은 教授의 確保'를 強點으로 보고 있다.

③ 隣接地域內 他大學의 同一學科에 비하여 현재 각 大學의 特性學科가 가지고 있는 強點으로는 全體的인 傾向에서 볼 때, 가장 많은 大學에서 '碩·博士學位 教育課程 운영의 充實性'(전체 83개교 중 31校, 37%)을, 그 다음으로 '우수한 學生과 卒業生들의 先導的 역할'(30校, 36%) 그리고 '우수한 教授陣과 많은 教授數'와 '학과 시설 및 설비의 우수성'(각 26校, 31%)을 들고 있다.

④ 他大學의 同一 學科와 비교해서 본 特性學科의 強點으로서 私立大學(校)의 경우는 '碩·博士學位 教育課程 운영의 充實性'(53校中 27校, 51%)를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國·公立 大學(校)의 경우 '產學協同體制 및 地域社會 發展에의 공헌'과 '우수한 學生과 卒業生들의 선도적 역할'(각각 20校中 7校, 35%)을 들고 있어 大學 設立別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專攻系列別로 보면, 語文·人文 및 社會系列의 特性學科들은 他大學의 同一學科에 비하여 '碩·博士學位 教育課程 운영의 充實

化'를 가장 큰 強點으로 보고 있으나, 理·工系列이나 農·林系列의 特性學科들은 '우수한 教授陣이나 學生들의 우수성'을 가장 큰 強點으로 들고 있다.

⑤ 地域社會의 特殊性과 관련지어서 현재의 特性學科가 지니고 있는 強點으로서는 全體的인 傾向에서 볼 때, 현재의 特性學科가 그 地域社會에 대한 奉仕와 產學協同을 活性化시킬 수 있다는 점을 59個校(71%)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特性學科에 대한 地域社會 住民들의 關心度가 크다는 내용은 불과 전체 83개교 중 6%인 5개교뿐에서만 나타나 地域社會에 대한 特性學科의 活動이나 貢獻度는 비교적 약하다.

4) 特性學科 運營機構와 發展計劃

① 1983년도에 特性學科를 각 大學에서 선정한 이후, 特性學科의 育成 및 發展을 위하여 大學內에 特性學科·運營機構를 두었던 大學은 불과 83개 大學(校)中 20%인 17개 大學뿐이며 나머지 66개 大學(校)은 特性學科를 위한 아무런 기구도 없어 特性學科에 대한 大學의 關心度가 매우 낮았다.

② 17개 大學內의 特性學科 운영 기구의 主要內容은 주로 大學의 綜合的인 教育計劃 樹立 및 조정, 有關機關과 產業體와의 연계 강화, 研究報告書 發刊, 教育 시설 및 教育 기자재 需給計劃, 教育課程에 대한 研究 및 審議 그리고 諸般 學事運營 및 大學雰圍氣 造成 등 다양하였으나, 실제로 特性學科의 育成 및 發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全般的인 大學의 운영에 대한 內容이 대부분이었다.

③ 17개 대학의 特性學科 運營委員會의 主要活動中 가장 많은 것으로서는 綜合的인 教育計劃 수립 및 조정(17校中 10校)이었으며, 이밖에 教育課程에 대한 研究 및 審議, 教育施設 및 教育 기자재 수급 계획 및 諸般 學事運營에 관한 활동이었다.

④ 전국 83개 大學(校)中 65%인 54개교는 特性學科의 育成을 위한 發展計劃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29개교에서는 아무런 발전 계획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綜合大學校보다는 單科大學이 그리고 서울 지역의 大學보다는 地方에

所在한 大學들이 特性學科 育成을 위한 발전 계획을 더 많이 수립하고 있다.

⑤ 54개교에서 수립한 特性學科의 발전 계획 내용은 教授 및 助教의 增員, 教授 및 學生의 海外研修, 產學協同의 強化, 教育課程·教授法 및 評價의 改善, 校舍 新築 및 施設 確充 그리고 學生의 資質 向上 등 여러 가지 計劃을 수립하였으나 具體的인 方案의 수립 및 進行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未備한 점이 많았다.

⑥ 特性學科의 발전 계획에 대한 내용 중 발전 계획을 수립한 총 54개교 중 43校(약 80%)는 校舍 新築 및 施設 確充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教育課程에 대한 研究 및 審議에 대한 것들이었다. 一般的으로 서울 소재의 大學보다는 地方大學의 발전 계획에서 校舍 新築 및 施設 確充이나 電算教育(computer) 확대에 대한 문제가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大學의 地域的 特性에 따라 발전 계획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⑦ 지난 5년 동안 特性學科에 대한 大學 自體의 評價가 한번이라도 있었던 大學은 전체 83개 大學의 25%인 21校가 自體評價를 하였고, 나머지 62개교는 特性學科에 대한 아무런 자체 평가가 없어 特性學科의 育成 및 發展問題에 대한 大學의 關心度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

5) 特性學科에 대한 大學 外部의 支援

① 지난 5년간 大學 外部(文敎部 및 政府 有關機關이나 產業體 및 其他機關)로부터 大學의 特性學科가 지원받은 大學은 전국 83개 大學中 35개교(42%)이며, 나머지 48개교(58%)는 아무런 지원도 받은 일이 없었다. 특히 大學 規模別로 볼 때, 綜合大學校의 경우는 지난 5년간 大學 外部로부터 지원받은 特性學科가 약 62%인 28개였던 데 반하여 單科大學의 경우는 불과 18%인 7개 特性學科에서만 大學 外部의 지원을 받아 큰 不均衡을 보이고 있다. 또한 專攻系列의 경우에도 理·工系列이나 農·林系列의 特性學科들이 語文·人文 및 社會系列이나 醫·藥系列 및 그밖의 專攻系列의 特性學科들보다 훨씬 많은 大學 外部의 지원을 받아 專攻系列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② 지난 5년간 特性學科가 大學 外部로부터 받은 支援 內容은 문교부 및 정부 유관 기관의 경우는 教授 海外研修, 大學生들의 장학금, 教授들의 研究費 그리고 기타 지원으로 되어 있으며, 産業體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는 大學生들의 장학금, 研究費 그리고 기타 사항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문교부 및 정부 유관 기관의 지원으로 教授의 海外研修는 83개 大學에 걸쳐 총 13명으로 平均 1년에 2.6명으로 불과 1년에 3개 特性學科만이 지원받은 것이 된다.

6) 特性學科의 變化 內容(1983~1987년)

① 1983년도 特性學科 選定時, 전국 83개 大學의 特性學科 專任教授는 983명이었으나, 1987년 6월 현재는 28%가 增員된 1,262명이다. 이러한 增員은 私立 單科大學의 特性學科가 가장 많은 56%의 증가를 보였으나, 반면에 私立 綜合 大學校의 경우는 1983년 당시보다 5년간 불과 15%의 增員에 그쳐 大學 設立 및 規模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地域別에 있어서도 그간 서울 소재 大學의 專任教授數는 1983년 당시보다 1987년도에는 불과 15%의 增員을 보인 반면 地方大學의 경우는 33%의 증가를 보여 서울보다는 地方大學이 特性學科 專任教授를 더 많이 增員한 결과라 할 수 있다.

② 特性學科 專任教員數의 증가를 專攻系列別로 보면 醫·藥系列의 特性學科가 그간에 약 100%의 증원을 보여 2배로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專攻系列의 경우는 1983년보다 겨우 10% 內외의 증가를 보였다. 이를 우리나라 全國 4년제 大學의 平均 專任教員數의 增加率과 비교하여 볼 때, 醫·藥系列을 제외하고는 각 大學의 特性學科 專任教員數의 增加率이 전국 平均 增加率보다 오히려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간의 特性學科 專任教員數의 增加는 그간의 學生數 증가에 따른 結果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간에 特性學科에 대한 專任教授 充員 問題에 대한 大學當局의 特別한 關心을 찾을 수가 없는 狀態이다.

③ 지난 5년간 特性學科 專任教員들의 受託 研究 및 海外研修는 1983년도에 비하여 1986년

도에는 수탁 연구의 수혜 教授數가 약 48%의 增加率을 보였고 海外研修 教授는 1983년도 53명에서 1986년도에는 불과 약 9%가 增加한 58명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增加率로 미루어 볼 때, 각 大學이 特性學科 專任教員들의 수탁 연구나 海外研修 기회에 대해서 惠澤을 크게 주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④ 지난 5년간의 特性學科 學生數의 變化는 全體적으로 볼 때, 1983년도에 비하여 1987년도에는 學部의 경우는 20%가 增員이 되었으며, 大學院은 37%가 增員되었다. 그러나 이를 地域別로 보았을 때, 서울 소재 大學의 特性學科 경우는 學部가 오히려 1983년도보다 3%가 감소되었으며 地方大學은 32%가 증원되었다. 大學院의 경우는 서울 소재 大學의 경우는 19%, 地方大學은 63%의 증가를 보여 이는 그간의 都市 地域 學生增員 抑制을 위한 文教政策의 結果라고 하겠다. 이를 우리나라 全體 大學의 學生數 增加率과 比較하여 보면(1984년과 1985년도의 비교) 오히려 特性學科의 學生數 增加率이 全體 우리나라 平均 增加率보다 낮아 그간 特性學科의 學生數 增員에 대한 政策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지난 5년간 特性學科 學生들에 대한 장학금 수혜자는 全體적으로 볼 때, 學部의 경우 1983년도를 基準으로 해서 1986년도에는 13%가 增加하였고, 大學院은 84%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장학금 수혜액은 學部는 21%, 大學院은 60%가 增額이 되었으나 大學院의 경우는 장학금 수혜액의 증액이 수혜자 수의 增加率보다 낮아 오히려 1人當 장학금 수혜액에 있어서는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一般的으로 特性學科의 장학금 수혜자 수나 장학금 수혜액의 增加率은 學部보다 大學院이 많았으나 國立 單科大學의 特性學科의 경우는 他類選의 大學보다 지난 4년간 特性學科의 장학금 수혜자 수나 수혜액의 증가가 매우 저조하여 1983년도와 1986년도가 거의 同一한 水準에 머물러 있다.

⑥ 지난 5년간 特性學科의 教育課程 運營面에서 특별한 변화나 개선을 시도했던 大學은 전체 83개 大學에서 60%인 50개 大學에서 이루어졌으나 33개교의 特性學科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教育課程 운영상의 변화나 개선은 私立大學보다는 國·公立大學에서 그리고 서울 소재 大學들보다 地方大學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다.

⑦ 지난 5년간 각 大學의 特性學科 專攻分野의 開設科目數의 全體的인 증가는 1983년도를 基準으로 하였을 경우, 1986년도에는 學部の 경우는 28%, 大學院은 24%의 增加率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同一期間內的 學生數 增加率을 고려하여 보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國立 單科大學의 大學院 경우는 1983년도와 1986년도에 開設科目數에 있어서 아무런 增加率을 보이지 않아, 이러한 開設科目數의 증가가 特性學科만의 변화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7) 特性學科의 問題點과 建議 內容

① 지난 5년간 각 大學이 特性學科를 育成 및 發展시키는데 있어서의 阻害要因으로서는 行·財政的 지원의 부족, 시설 및 설비 부족, 教授 및 助教의 부족, 學部와 大學院의 연계성 부족, 教育課程 運營의 未備, 教授 및 學生의 海外研修 및 交流의 未備, 產學協同의 부족 등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② 特性學科 育成 및 發展에 阻害 요인이 되는 여러 가지 問題中 전체 83개 大學의 63%인 52개교에서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阻害要因은 '行·財政的 支援의 不足'이며, 그 다음이 '시설 및 설비의 부족'(44개교, 53%), '教授 및 助教의 不足'(25개교, 30%) 등의 문제들이다. 특히 國·公立大學의 特性學科들이 私立大學들보다 行·財政的 支援이나 시설 및 설비의 부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으며 特性學科의 教育課程 運營의 未備와 教授 및 學生의 海外研修 등의 문제는 地方大學이 서울 지역의 大學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③ 特性學科 育成 및 發展을 위하여 大學當局에 대한 建議 內容은 教授 및 助教 充員과 研究費 확대, 시설 및 설비의 확충, 教育課程의 改編, 教授의 海外研修 機會 擴大, 特性學科 發展 委員會 구성 및 相關 研究所 設립, 大學院의 新設 및 增員 그리고 產學協同의 強化 등 大體的으

로 特性學科 育成 및 發展의 阻害 요인에서 나타난 문제들과 거의 一致하고 있다.

④ 大學當局에 대한 特性學科 發展을 위한 건의 內容 중 가장 많은 反應을 보인 것은 '特性學科의 시설 및 설비의 擴充'에 대한 內容으로서 전체 83개 大學中 46개 大學(약 55%)에서 建議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教授 및 助教 充員과 研究費 增額'이 32개교(37%), '大學院 新設 및 增員'이 19개교(23%) 그리고 '特性學科 發展을 위한 委員會 構成'(15個校, 18%) 등의 順位로 나타나 주로 大學當局에 대한 주요한 건의 內容들이 大學教育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問題들이다.

⑤ 特性學科 育成 및 發展을 위한 對 文教部 및 關係機關에 대한 건의 內容 중 가장 많은 것은 '教授 및 助教 充員과 研究費 擴大'로서 全體 83개 大學中 52%인 43개교에서 건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特性學科 施設 및 設備 擴充'(34校, 41%) 그리고 '教授 및 學生의 海外研修 機會 擴張'(31校, 37%)의 順位로 나타나, 이는 大學當局에 대한 건의 內容과 거의 同一한 것이다. 특히 地方大學의 特性學科들이 教授 및 助教 充員과 研究費 增額 問題와 시설 및 설비 擴充 問題에 대해서는 서울 소재 大學의 特性學科보다 더 심각한 問題로 부각되고 있다.

⑥ 特性學科 育成 및 發展을 위한 對 地域社會 및 產業體에 대한 건의 內容으로서는 產學協同體制의 강화, 產業體 및 地域社會 要員의 再教育 要求, 特性學科 學生들의 就業 優先權 賦與, 現場教育 實習을 위한 機會 提供 그리고 財政的 支援을 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건의 內容 중 가장 많은 것은 '產學協同體制의 強化'로서 전체 83개 大學中 47%인 39개교에서 建議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1개교(25%)가 '產業體 및 地域社會 要員의 再教育 參與'와 '特性學科에 대한 財政的 支援' 등에 대한 內容이며, 19개교(23%)에서 '特性學科 學生들의 就業優先權 賦與'와 '現場教育 實習을 위한 機會 提供' 등의 內容들이다.

⑦ 地域社會 및 產業體에 대한 건의 內容 중 產學協同體制의 강화와 特性學科에 대한 財政的 支援은 語文·人文 및 社會系列보다 自然系列의

特性學科에서 더 요청하고 있으며, 서울보다는 地方大學의 경우가 더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8) 現地訪問 評價

① 전체 83개 大學中 24개 大學에 대한 現地訪問 評價過程에서 나타난 사실은 ‘大學 特性學科 自體分析 研究報告書’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이 지난 5년간 각 大學의 特性學科에 대한 客觀的이고 누적된 기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매우 形式的이고 皮相的인 資料에 依據한 내용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大學當局이나 特性學科의 教授들이 特性學科에 대한 概念이나 그 必要性에 대한 認識의 程度가 매우 낮았다.

② 大學內에서 特性學科의 選定過程에서 大學 構成員들간에 合意가 없었던 關係로 特性學科에 대한 大學 全體의 關心과 誠意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特性學科에 대한 育成 및 發展計劃에 대해서도 具體的인 方案이 거의 없는 狀態이다. 따라서 앞으로 特性學科를 育成 및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大學當局의 自律的인 計劃으로는 大學의 全般的인 財政的인 問題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行政的인 具體的 指針이나 政策的 次元에서 特性學科의 育成方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特性學科의 專任 教授들의 支配的인 見解이다.

2. 提 言

1987년도 大學 特性學科 評價를 위한 自體分析 研究報告書 結果와 現地訪問 評價에 나타난 結論을 토대로 앞으로 特性學科를 育成 및 發展시키기 위한 몇 가지 提言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特性學科 選定을 위한 妥當한 基準을 設定하고 이를 具體的으로 明細化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大學 特性學科 自體分析 研究報告書와 現地訪問 評價에 의하면, 1983년도에 각 大學에서 선정한 特性學科의 概念이나 定義에 대한 理解度가 모든 大學에서 同一하지 않았기 때문에 特性學科를 선정하는 基準도 大學마다 相異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3년도에 大學에서 特性學科를 선정하였을 당시의 선정 이유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特性學科에 대한 大學內의 教授들이나 學生들의 認識이 부족하였다. 더구나 1983년도에 실시된 特性學科 運營과 1985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地方據點 大學 育成方案간에는 대학 현장에서 상당한 혼선이 야기되어 特性學科 育成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각 大學이 위치하고 있는 地域的 特性이나 大學의 傳統 및 設立 理念에 비추어 볼 때, 特性學科의 개념이나 그 선정 기준을 單一化하여 모든 大學에 一律的으로 適用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각 大學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特性들을 고려한 特性學科를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성학과와 필요성에 대한 大學內 구성원들의 인식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각 大學마다 特性學科에 대한 정의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규정된 정의나 개념을 토대로 대학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타당하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明細化할 필요가 있다.

둘째, 特性學科의 育成을 위하여 短·長期 發展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推進할 수 있도록 각 大學內에 常設機構인 特性學科 運營委員會(가칭)를 設置하여야 할 것이다.

1983년 각 大學이 特性學科를 선정한 이후 特性學科의 育成을 위하여 대학내 특성학과 운영 기구를 설치하였던 대학은 불과 17개(20%) 大學뿐이었다. 이들 17개 大學도 獨立된 상설 기구로 운영 기구를 설치한 大學은 거의 없었으며, 다른 운영위원회에서 특성학과 운영에 대한 諸般 학사를 결정하였다. 특히 지난 5년간 特性學科에 대한 短·長期的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推進해 왔던 大學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一般的으로 아무리 좋은 制度나 政策일지라도 대학 스스로의 自律的인 개선이나 혁신적인 의지 없이는 대학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特性學科를 育成시키고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特性學科 육성을 위한 모든 發展計劃, 推進方案 및 評價活動까지도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常設機構인 위원회를 대학 안에 설치하여 이를 活性化시켜야 할 것이다.

세계, 一定 地域圈內의 特性學科를 육성시키기 위하여 特性學科의 선정에서부터 諸般 운영에 이르기까지 상호 협의할 수 있는 一定 地域圈內 大學間 協議體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特性學科의 선정은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나 전통 및 建學理念 등 다양한 準거에 의하여 대학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특성학과를 선정한다. 따라서 同一 지역권내의 여러 대학에서 선정된 특성학과는 지나치게 同一學科로 偏重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地域社會의 全般의인 學問的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각 대학이 지니고 있는 地域的 특성이나 學科의 우수성 및 전통 그리고 교육 이념 등을 고려하되, 이러한 同一 地域內의 偏重된 特性學科를 방지하고 제반 학사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인접된 大學間에 協議體를 두어, 각 大學의 특성과 지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대학이 특성학과를 育成시킬 수 있도록 大學間에 特性學科 育成을 위한 協議體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네째, 각 大學에서 選定된 特性學科에 대하여서는 政府의인 次元에서 行·財政的으로 계속적인 支援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각 大學에서 特性學科를 육성시키는 데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文敎部 및 정부 기관이나 대학 당국의 行·財政的 지원의 부족과 教授와 助教要員 그리고 시설과 설비의 부족 등이다. 또한 1983년 이후 특성학과가 지금까지 아무런 發展을 하지 못한 이유도 정부나 대학에서 특성학과에 대한 적극적인 行·財政的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각 大學의 特性學科를 育成 및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一定 기간 동안의 長期的이고 계속적인 行政的 지원과 더불어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例示的인 방안으로서 大學 및 文敎部의 연구비 지급이나 장학금의 지급 선정에서 각 대학의 특성학과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든가, 教授 海外研修 및 教授充員에서 특성학과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方法도 있겠으며, 또한 이 이외의 특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行·財政的 뒷받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5년간 각 대학 특성학과의 교수 요원이나 학생들의 장학금 또는 교수 해외 연수와 교수 충원에 있어서 同一大學內 타학과에 비하여 아무런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特性學科로서의 特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政府 차원에서의 行·財政的인 지원만으로는 이러한 特性學科를 育成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여기에는 大學當局의 自律的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特性學科에 대한 정부의 財政的인 지원금의 일정한 비율만큼은 대학 당국이 自體 豫算으로 책정하는 方案도 더불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特性學科의 長期的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 地域社會內의 產業體와 大學間에 協同體制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本質的인 大學의 機能中의 하나는 社會奉仕의 기능이다. 오늘날 大學은 蓄積된 지식과 기술 그리고 高級人力으로 그 大學이 位置하고 있는 地域社會 발전에 공헌해야 하며, 동시에 지역 사회는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살아 있는 敎育의 場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特性學科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그 大學이 位置하고 있는 地域社會와의 연계 체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번 特性學科 評價에서도 大學이 對地域社會나 產業體에 대하여 가장 많이 建議했던 내용도 產學協同體制 강화의 문제를 提示하고 있다. 大學과 產業體와의 연계 체제의 한 方案으로서 地域社會 및 產業體 要員들의 再敎育을 위해서 그 地域內의 大學이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作成 및 編成하여 교육 활동을 담당하는 방안이나 혹은 대학교육의 현장교육 실습을 위하여 產業體나 地域社會가 그 機會를 提供해 줄 수 있는 協力體制를 강구할 수가 있다.

여섯째, 特性學科에 대한 계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特性學科에 대한 評價가 2~3년마다 週期的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特性學科의 敎育을 質的으로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大學 자체가 스스로 특성학과에 대한 연구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또한 외부로부

터의 객관적인 주기적 평가도 필요하다. 本質的으로 大學의 評價 目的은 大學教育의 質的 提高를 위하여 大學이 끊임없이 發展하도록 促進시키면서 大學 相互間의 自律的인 평가를 통하여 大學이 스스로 自體 改善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大學의 特性學科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는 궁극적으로 大學의 특성學科를 발전시키고 특성학과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要素의 하나라고 본다. *

附 錄

<대학(교)별 특성학과명>

대학(교)	특성학과	대학(교)	특성학과	대학(교)	특성학과	대학(교)	특성학과
강원대	축산학	경기대	관광경영	영남대	금속공학	부산여대	식품영양
경북대	미생물학	경남대	정치외교	울산대	조선행공학	부산외대	영어
경상대	농화학	경희대	의학	원광대	한의학	상지대	축산학
부산대	화학	계명대	영어영문	이화여대	영어영문	서울여대	농촌과학
서울대	전자공학	고려대	생물학	인하대	기계공학	성심여대	사회사업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국민대	공업디자인	전주대	한문교육	세종대	식품과학
전남대	원예학	단국대	치의학	청주대	경영학	수원대	유전공학
전북대	축산학	대구대	특수교육	한국외대	영어	순천향대	의학
제주대	증식학	동국대	전자계산	한남대	영어영문	인천대	영어영문
충남대	농학	동아대	환경공학	한양대	기계공학	전주우석대	약학
충북대	약학	동의대	기계설계	홍익대	서양화	청주사범대	교육학
강릉대	지역개발	명지대	전자공학	효성여대	영어영문	한림대	사학
공주사범대	생물교육	부산산업대	화학	경원대	경영학	한성대	미술
군산대	생물학	상명여대	미술	관동대	전자공학	호남대	경영학
북포대	전산통계	서강대	화학	광운대	전자재료	호서대	전기공학
부산수산대	식품공학	성균관대	물리학	금오공과대	전자공학	고신대	신학
순천대	농업교육	성신여대	독어독문	대구한의대	한의학	아세아연합신학대	아세아
안동대	민속학	숙명여대	국어국문	대진대	한의학	신성신학대	신학
창원대	기계공학	숭실대	전자계산	덕성여대	유아교육	침례신학대	신학
한국해양대	항해학	아주대	전자공학	동덕여대	산업미술	한신대	신학
건국대	축산학	연세대	수학	배재대	유아교육		